

露西亞의 思想史上 헤겔主義의 存在 (十)

(-양코·야-넬說에 依하여-)

田元培

그는 一八三九年에 自己의 妻의 友人 오기레보와 함께 □□□의 雨□에 對한 □□와 喜悅에 넘쳐서 □□한 일이 잇섰다. 그러나 헬첸은 一八四八年以後로는 어데까지든지 □□한 實證主義者가 되려고 애썼다. 그래도 그의 空想主義的 氣分은 끈임업시 □□하엿섰다. 그는 여러 번이나 □□를 定하여 노코이 □則에 依하여 神秘主義에서 徹底히 □□할라고 애썼다. 그러나 그의 □性은 人肉에 對한 信仰과 떠러질 수가 업섰다. 그는 □□ 露西亞를 信仰하엿다. 「露西亞에 對한 信仰은 나쁜 道德的 □□에서 救濟하엿다」고 그는 一八五四年의 어느 날 日記 가운데에 記錄하엿다. 「이 信念 □□하여 이 記錄의 回想을 爲하여 나는 露西亞에 □□하지 안으면 안된다. 나는 다시 露西亞를 보게 될는지 모른다. 그러나 露西亞에 對한 나의 사랑은 죽을때까지 끈치지 안을 것이다.」

그리하여 그는 一八五七年에 自己의 未來에 할 일을 다음과 가티 規定하엿다. 「活動하자! 活潑히 活動하자! 露西亞의 人民을 爲하여!」 이것이 實證主義者 헬첸의 心中이엿다.

헬첸은 그 一生 中에 만흔 悲劇的 經驗에 依하여 눈을 가운데에 信仰을 發見마 [한]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엿다. 그러한 때에 限하여 實證科學만으로는 그의 마음을 慰勞하기가 너무도 不充分하엿다. 그래도 그는 꾸준히 自己를 □□하여 그는 浪漫主義的 感傷主義를 물니치고서 科學에 信念을 두고 科學的 發明의 功□ 속에 慰勞을 求하엿다.

科學만이 人生에게 絶 □□을 가진 것이엿다. 그리하여 헬첸은 虛無主義 運動에邁進하게 되엿섰다. 왜 그런고 하니 헬첸에게 對하여는 虛無主義는 浪漫的 헤겔主義에 對立하는 唯物論이기 때문이엿다. 헬첸은 미크-닌과 함께 虛無主義 主□□하엿다. 그는 虛無主義를 이 時代의 露西亞思□□□의 □□의 □□으로 보고 卽 偶像崇拜의 實證主義的 □□로 보앗다.

「虛無主義는 拘束 업는 論理은 「도구마[도그마]」 업는 哲學이오, □□의 無制限的 □□이오, □□의 成果 又は 理性의 □□이면 어떠한 것이든지 □入하는 것이다.」

그리하여 헬첸의 虛無主義는 現實과 思想을 無에 轉化식히는 것도 아니오, 單純한 懷疑主義도 아니오, 또 □□된 意味에서 본 □□□□도 아니었다.

「虛無主義는 새로운 原理, 새로운 基礎를 確立하는 것이 아니다. 날근 露西亞의 「現實的 批判」이었다. 여기서 우리는 露西亞의 虛無主義가 決코 一新의 宗教的 運命□□이 아님을 알 수 있다. 理性은 어디까지든지 科學上의 디뎃 단티즘을 排斥하는 同時에 人生에게 關係 업는 純全한 哲學的 理論의 無意味를 主張하였다. 「사람은 論理形式에 依하여 出生하는 것이 아니라 道德的으로 自由스런 歷史的 世界, □學的 活動의 世界 속에서 □□을 하지 안하면 안되는 것이다. 사람은 論理의 理念을 □□하는 能力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所□的, 創造的 想念의 所有者이다.

헬첸은 以上과 가티 純全한 헤-겔派와 思辨的 形而上學을 排斥하고 포이엘바하□의 人間學的 唯物論에 到達하였지만, 同時에 그는 「革命의 代□學」이라고 自己가 正當히 規定한 헤-겔의 辨證法을 遺失하고 포이엘바하의 缺陷을 認識치 못하였든 것이다.